

## TU GRAZ 교환학생 활동보고서

산업공학과 신지예

2019년 1학기에 TU GRAZ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산업공학과 신지예입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우고 느낀 것도 많고 이 학교로 교환학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도 많지만 저는 주로 제가 들은 수업, 생활하면서 유용했던 정보와 느낀 점에 대해서 적겠습니다.

### 1. 수업

TU Graz는 강의들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일반 과목들같이 매주 특정 시간대에 수업을 하는 일반 course와 일주일 내외로 하루에 많은 시간(거의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을 몰아 수업하는 Intensive course가 있습니다. 그 중 산업공학과(Software Development and Business Management)는 과목들이 Intensive course로 열리는 경우가 많아 저는 자연스럽게 주로 Intensive course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German Intensive Course: 학기 시작 전 방학에 열리는 강의로 친구들 만나기 제일 좋은 수업이라 꼭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 교환학생들이라 서로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도 강하고, 숫자나 음식, 오스트리아식 인사 등 생활하는데 유용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는 수업입니다. 저도 여기서 만난 멕시코 친구들과 학기 내내 만나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수업 방식은 선생님마다 다르지만 책과 보조프린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한 달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내내 진행되기 때문에 로드가 좀 있는 편입니다. 시험은 written test와 oral test를 둘 다 보는 것 같습니다.

Learning Factory(Intensive): 같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끼리 이후 다른 수업들을 듣고 이 수업을 구관이 명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업이 학기 초반에 열려 듣는 당시에는 얼마나 이 수업이 잘 짜여 있고, 가르치는 것이 많은지 느끼지 못했지만 학기가 끝난 후 되돌아보니 제일 좋았고 인상 깊은 수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가상의 스쿠터 공장을 점점 더 산업공학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강의를 통해 이론을 배우고 이를 직접 아래층에 있는 스쿠터 공장에 적용시켜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강의와 실습이 번갈아 있는 구조로 수업하는 교실을 계속 이동해야 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방금 배운 것들을 직접 적용해 공장이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Logistics(Intensive): 트램부터 전자레인지까지 온갖 물건을 다 만드는 제조회사인 SIEMENS 공장이 Graz에 있어 수업에서 공장견학을 진행합니다. Graz 공장은 특히 전차를 만드는 공장이고 견학을 진행하며 물류 흐름도, 이 공장의 개선 점 등을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하고 이 견학이 전체 수업 중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Lecture 수업이 체계적이지 않고 수업 마지막 날에 평가를 위한 case study토론, layout design, discussion 등 거의 수업의 모든 할 것들을 몰아넣은 듯한 일정은 아쉬웠습니다.

Industrial Software Development and Quality Management(Intensive): SW Dev.라는 강의명을 보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목인 줄 알았으나, 전혀 상관없는 Automotive에 관한 내용만 수업했습니다. 수업 첫 날에 이 과목은 Automotive Industry에 관한 내용을 수업할 예정이니 자신의 생각과 수업이 다르다고 느낀다면 드랍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수업이 5월 말에 열려 드랍할 경우 제가 듣는 학점이 너무 적어져 드랍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따라서 그냥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대부분이 대학원생이고 수업 내용 자체가 자동차의 구조와 자동차 내부의 SW에 관한 내용이라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자동차 자체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이 강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Database 1: ER diagram, 3NF, API, B-tree, 트랜잭션 serialization 등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대해 배웁니다. 3번의 과제와 마지막 기말 시험이 있는 비교적 한국에서 듣는 강의와 비슷하게 진행된 강의였지만 한 번 수업 때 나가는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수업 전반적으로 느낀 점으로는 이곳 학생들은 즉석으로 발표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표라고 하면 꼭 피피티를 만들고 발표 스크립트를 짜서 하는 발표를 많이 생각하는데 TU GRAZ에서 들은 수업들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팀원과 토론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학생들은 이런 수업 방식이 익숙해 보였고 발표라기 보다는 정말 토의 내용을 모든 학생들에게 편안하게 공유하는 듯이 말을 이어갔고 수업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발표를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하는 발표라는 생각에 두렵고 떨렸지만 몇 번 이런 발표를 하다 보니 익숙해져 전보다는 덜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교환학생 갔다 오면 나도 외국 학생들처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바보 같은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로 변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교환학생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2. 생활 전반

### 2.1 기숙사

저는 기숙사 배정 시 요청사항에 플랫폼에 여자만 있었으면 좋겠고 되도록 한국 친구들과 같은 플랫폼을 쓰고 싶다고 적었는데 이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특히 가끔 남자 기숙사에 여자가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 플랫폼 구성원의 성별은 꼭 명시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OeAD 기숙사는 총 4개의 건물(Moserhofgasse, Steyrergasse, Neubaugasse, Zinzendorfsgasse)이 있습니다. 이 중 처음 3개 건물은 제가 자주 가 보았지만 Zinzendorfsgasse는 가보지 못해 앞에 3개 건물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 Moserhofgasse: 저는 OeAD Moserhofgasse 1인실 기숙사에 거주했으며 비용은 한달에 415유로로 비싼 편이었지만 시설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Graz는 도시 전체에 대학 건물이 흩어져있는데 특히 Moserhofgasse는 제가 듣는 수업이 열리는 Inffeldgasse와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수업을 듣는 것이 매우 편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SPAR라는 슈퍼가 있고 3분만 걸어가면 BILLA라는 슈퍼도 있어서 음식 재료를 사는 것이 매우 편했습니다. 또한 기숙사 건물이

가장 최근에 지어져 깨끗하고 밤에 파티도 잘 열리지 않아 소음이 적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내 중심가인 Jakominiplatz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있고 트램 노선도 근처에 하나밖에 오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불편했습니다.

2) Steyrergasse: Jakominiplatz까지 걸어서 10분 정도라 접근성도 괜찮고 Alte Technik (건축과가 있는 건물)과도 가까워 어디든 찾아가기 좋은 기숙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슈퍼들이 다 5분 넘게 걸어가야 하는 곳에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하 파티룸에서 파티가 자주 열려 다른 학생들을 만나고 어울리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Moserhofgasse에 비해 방이 조금 좁다는 느낌이 들었고 여름에 방이 금방 더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Neubaugasse: 중앙역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고 집 근처에 SPAR, BILLA, Hofer라는 슈퍼가 있어 식재료를 사기 편합니다. 또한 테라스가 있는 (제가 가본 곳 중에는) 유일한 기숙사이고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뷰가 예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강 건너편에 있어 수업이 열리는 학교 건물들까지 거리가 멀고 밤에 지하 파티룸에서 열리는 소리가 위층까지 올라와 시끄러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 2.2 이동 수단

저는 Graz 시내에서는 자전거를 중고로 구입해 타고 다녔습니다. 자전거 도로 표시도 잘 되어있고, 자동차 운전자들도 자전거를 배려하는 운전을 잘 해주셔서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이용하고 왔습니다. 저는 트램보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어디든 빨리 편하게 갈 수 있어 잘 타고 다녔지만 자전거를 탈 줄 모르시는 분은 오리엔테이션 때 알려주는 학생 정기 트램권을 구입하셔서 다니면 훨씬 저렴하고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3달에 10만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실 때 주의할 점은 밤이 되면 앞뒤로 꼭 라이트를 달아야 한다는 것과 트램라인에 자전거 바퀴가 빠지면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이 취급되어 차도로 달리므로 좌회전/우회전시에 손으로 꼭 깜빡이 표시를 해야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유럽으로 왔으니 검사겸사 여행도 하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 여행할 때 이동수단으로 버스는 FLIX BUS, 비행기는 RYAN AIR, 기차는 OeBB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이 세 회사 모두 할인 혜택이 있어 알차게 사용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FLIX BUS: 국제학생증(ISIC)이 있으면 할인 바우처(최대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학생증은 다른 여행지에서도 여러 할인 혜택이 있으니 만들어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RYAN AIR: TU GRAZ 오리엔테이션에 가면 ESN Card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카드를 계정에 등록하면 출발 30일 이전에 결제하는 몇몇 항공편에 한해 최대 8번 할인과 무료 짐 추가(20kg)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OeBB: 오스트리아 기차회사인데 중앙역에 가거나 혹은 어플로 신분증과 19유로 정도의 비용을 내면 Jugend(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있으면 할인되는 기차표 외에 일반 기차표를 50%할인 받을 수 있으니 오스트리아 내에서 기차를 통해 여행을 다니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유럽 내 야간열차는 모두 OeBB

소유라고 들었는데 야간열차를 타보는 로망이 있으신 분들도 카드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2.3 유용한 어플

유럽에 오시면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본인인증이 힘들다는 것인데, 핸드폰에 IPIN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깔아오시면 본인인증을 해외에서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깔아오지 않아 힘들었지만 다른 친구는 유용하게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꼭 깔아두시는 것을 추천하는데 해외송금의 경우 1회 송금 수수료가 5000원밖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Graz는 구글맵이 트램에 대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BusBahnBim이라는 어플을 깔아두시면 길찾기에 편리합니다. 특히 이 어플은 오스트리아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니깐 잘츠부르크와 같이 구글맵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시면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어플에서 알려주는 자전거 시간이나 걷는 시간은 실제보다 매우 빠르게 나오니 그대로 보고 갔다간 정말 큰일납니다(ㅎㅎ...)

### 3. 느낀점

먼저 교환학생을 갔다 온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교환학생을 간 것은 아주 좋은 결정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교환학생을 갈 생각이 전혀 없어서 4학년때까지 관련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교환학생을 가있는 친구들의 추천과 교환을 가려는 친구의 같이 가자는 말에 준비해 가게 되었습니다. 또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대학생활 마지막까지 즐기자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학년 2학기에 교환학생을 가는 것이 너무 시간낭비는 아닐까, 놓고만 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었고 저는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당장 그 다음학기에는 결정해야 하는 제 진로라는 고민의 답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출국 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두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여러 값진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환학생 초반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인간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친구들을 새로 사귀는 과정에서 제 눈엔 단순히 외국인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배려가 많은 사람,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 등 사람 그 자체로 느껴지는 순간은 정말 교환학생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한번에 만날 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수업을 들으면서 유럽 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같이 토론해 본 것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갔다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중한 값진 교환학생 경험을 하게 해주신 공과대학 대외협력실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은 수업 중 가장 좋았던 수업인 Learning Factory 마지막 날 기념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마치겠습니다.

